

# 光州 風詠亭 次韻詩 고찰

황민선\*

## <차 례>

1. 머리말
2. 풍영정 차운시의 형성배경
3. 풍영정 차운시 시기별 양상
  - 1) 16세기: 歸田에 대한 열망
  - 2) 17세기: 시름의 표출
  - 3) 17·18세기: 회상의 도구로써 현판
4. 맺음말

## <국문초록>

風詠亭은 16세기 漆溪 金彦据(1503~1584)가 지은 정자로 광주, 나주, 장성을 잇는 길목에 있는 위치상의 특징과 김언거의 교유 인물들이 갖는 명성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서 오랫동안 기능하였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는 누정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많은 차운시를 낳게 했고 이런 차운시는 이 시기에 지어진 여타의 누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풍영정을 대표하는 특징이자 또 하나의 경관이 되었다.

누정은 그 공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기고, 문학작품은 시판의 형태로 누정에 걸려 또 다른 절경을 낳는다. 이런 누정 작품들은 누정에 대한 또 다른 문학적 공간이 되어 누정을 직접 향유하지 않아도 문학적 경치로서 또 다른 누정문학을 양산케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누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실경이자 문학적 경치가 되는 누정문학은 누정 공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작품 특히 누정시에 나타난 누정 공간 특성을 본 기존의 연구들을

\* 전남대학교

살펴보면 대체로 누정연작제영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다. 누정연작제영은 누정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혹은 뛰어난 경관을 설정한다는 그 특성상 설정된 공간은 각각의 누정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대표공간이 되는 한편, 누정을 향유하는 향유자들의 누정 공간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지향하는 산수미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정시에 있어서 누정연작제영 보다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 누정제영을 보지 않고는 집경에 치중하는 누정연작제영만을 가지고 누정공간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풍영정은 180편이 넘는 동시기 다른 누정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차운시를 보유하고 있다. 풍영정 공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풍영정의 차운시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차운시를 중심으로 풍영정의 공간 특징을 歸田, 시름, 회상과 같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핵심어 :** 누정, 누정제영, 누정 차운시, 풍영정, 김언거

## 1. 머리말

風詠亭은 16세기 漆溪 金彦據(1503~1584)가 지은 정자이다. 풍영정은 광주, 나주, 장성을 잇는 길목에 있는 위치상의 특징과 김언거의 교유 인물들이 갖는 명성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서 오랫동안 기능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는 누정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많은 차운시를 낳게 했다. 이런 차운시는 이 시기에 지어진 여타의 누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풍영정을 대표하는 특징이자 또 하나의 경관이 되었다.

누정은 그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기고, 문학작품은 현판의 형태로 누정에 걸려 또 다른 절경을 낳는다. 누정 작품이 누

정 현관의 형태로 구현되어 누정의 실경이 되는 것이다. 또 작품들은 누정에 대한 또 다른 문학적 경관이 되어 누정을 직접 향유하지 않아도 문학적 경치로서 또 다른 누정문학을 양산케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누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실경이자 문학적 경치가 되는 누정문학은 누정 공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누정문학의 형태는 연작형태로 되어 누정의 집경을 몇 가지로 한정된 누정연작제영, 누정을 방문하고 쓴 기록인 누정기, 그리고 누정에 대한 소회를 담은 누정 제영 등으로 거칠게 나눌 수 있다.<sup>1)</sup> 넓은 의미에서 누정연작제영도 누정제영에 속하지만, 누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소재목을 가지면서 연작의 형태를 하지 않은 일인창작 제영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해 보면 누정제영은 원운시와 이를 차운한 차운시, 그리고 차운을 하지 않은 시, 차운을 하지 않은 시의 운자에 다시 차운을 하는 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형태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언제나 원운시가 있고 그 운자에 차운을 하는 기본 형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풍영정은 金麟厚, 李滉, 林億齡 등이 쓴 누정연작제영인 <漆溪十詠> 이외에도 약 180여 편 정도로 동시대 다른 누정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차운시를 보유하고 있다. 누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문학작품 특히 누정시에 나타난 누정의 문학적 형상화나 문학공간적 특성을 보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누정연작제영을 중심으로 한다. 누정을 구성함에 있어 뛰어난 경관은 빠질 수 없는 주요요소이니 만큼 누정의 경관을 주요 대상으

1) 누정연작제영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형태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본 ‘누정연작제영’(김신중, 「전남의 누정제영연구: 조선후기의 연작제영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4집, 전남대 호남한문학회연구소(현 호남학연구원) 1996), 그리고 집경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 ‘누정집경시’(최경환, 「洪命元の <鳳翼亭四詠>시와 4수 연작누정집경시의 작시원리」, 『외대논총』, 부산외국어대학교, 2002; 「多人 創作 누정집경시와 시적 이미지 창출」, 『부산한문학회연구』 18집, 부산한문학회 2003; 「李齊賢의 <和季明叔雲錦樓四詠>시와 4수 작시원리」, 『외대논총』 26집, 부산외국어대학교 2003)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누정제영과의 구분을 위해 누정연작제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로 한 누정연작제영은 누정 제작자의 조영의식과 누정 향유자들의 산수미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정시에 있어서 원운시와 차운시로 구현되는 누정제영은 연작제영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누정을 배경으로 한 향유자들의 관계 및 향유 행위가 담긴 경우가 많아 누정문학을 연구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누정을 조영하는 시대가 지난 뒤에도 끊임없이 추가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어 시대에 흐름에 따라 누정이 어떻게 인식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풍영정은 180편이 넘는 동시기 다른 누정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차운시를 보유하고 있다. 풍영정의 누정문학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풍영정의 차운시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풍영정은 16세기 이후 무등산권 누정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해왔으나, 그에 걸맞게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존의 논의는 매우 아쉬운 수준이다. 이에 대한 논저로는 풍영정의 누정연작제영인 <漆溪十詠>을 통해 풍영정의 공간형상을 분석한 박연호<sup>2)</sup>와 김언거의 유집인 『漆溪集』과 현판시와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통해 풍영정의 역사와 교류 인물들을 살펴본 권수용<sup>3)</sup>의 논문이 전부이다. 그 문학적, 문화적 위치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풍영정에 주목하여 풍영정을 심도있게 살핀 논저들이지만, 풍영정을 이해하는데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차운시들에 대한 밀도있는 고찰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에서는 풍영정의 차운시들을 논의의 주대상으로 하여 차운시들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개인문집이나, 읍지 등에 실려 내려온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 특히 후대로 내려가면서

2) 박연호, 「광주 풍영정 원림의 공간특성과 그 의미」(『인문학연구』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3) 권수용, 「광주 풍영정의 문화사적 의의」(『정신문화연구』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추가되는 차운시의 경향 때문에 그 수를 모두 파악하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2007년에 광산김씨 칠계공파 문중에서 풍영정에 보관된 현판의 시들을 중심으로 펴낸 『풍영정시선』에 수록된 약 80여편의 차운시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풍영정은 여타의 누정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80여편의 현판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판으로 판각되어 누정의 일부로 보존되는 차운시는 대체로 시를 쓴 작자의 명성과 시의 유려함 때문에 선정되어 전시되는 경향이 강한 시들이기 때문에 풍영정 차운시를 대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풍영정 차운시의 형성배경

주지하다시피 풍영정은 칠계 김언거가 16세기 중반에 退休 뒤 은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누정이다. 광주, 나주, 장성 세 길목의 사이인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극락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김언거는 자가 季珍, 호는 漆溪, 豊咏, 灌圃堂이다. 1531년 문과에 합격한 이후 예조좌랑, 정언, 상주 목사, 통정, 응교 등에 제수되었다가 1555년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1557년 승문원 판교에 오른 뒤 1560년에 퇴임하여 풍영정에서 소요하며 말년을 보냈다. 김언거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은데, 우선 그의 글들이 임진왜란과 같은 병화로 소실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1922년이 되어서야 후손들에 의해 『漆溪集』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그 뒤 2004년에야 여기에 김언거와 교유했던 인물들의 시들까지 합본, 완역한 『漆溪遺集』이 나왔다.

그러나 풍영정에 관련한 작품들은 꽤 방대한 양으로 남아 있다. 풍영정 관련한 제영들을 모집한 기록은 1548년부터 시작한다. 김언거는 당대의 유명한 인사들과 꽤 밀접한 교류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李滉, 曹植, 宋麟壽, 金麟厚, 林億齡, 宋純, 周世鵬, 奇大升, 高敬命, 柳希春 등으로

대부분 풍영정에 대한 차운시를 남겼다. 이들 중 이황, 조식 등과 같은 인물은 누정에 직접 오지 않고 김언거의 청탁으로 차운시를 남긴 경우인데,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1548년 이전부터 이미 김언거는 퇴휴시 지낼 공간으로 풍영정을 축조했거나, 혹은 축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벗 김계진은 일찍이 서울에서 나와 함께 같은 마을에 세들어 살았는데, 그가 나에게 이르길 “내 고향집인 광주의 칠수 가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풍영이라 하여 내 뜻을 붙여두었네.”라고 하며 여러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보여주었다. 나도 또한 이에 화운하며 계진이 즐거움을 둔 바를 알게 되었다. 지난해 계진이 상주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고을에 또한 풍영루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우연찮게 고향의 정자와 같았다. 나는 짐짓 기이하게 여겼는데, 어제 계진이 단산으로 안부편지를 보내며 시첩 또한 같이 부쳐왔다. 뜯어서 이를 읽어보니 곧 주세붕이 그곳을 노닐던 일을 읊고 또 스스로 발문까지 하고, 황기호가 글씨를 쓴 것이었다.(하략)<sup>4)</sup>

위의 인용문은 이황이 쓴 풍영정에 관련한 시첩의 후서이다. 이황은 김언거와의 사이가 무척 각별하였는데,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 김언거의 안부에 대한 글이 있을 정도였다.<sup>5)</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김언거는 서울에 살던 시기이자 상주목사에 부임하기 전인 1546년 이전에 풍영정을 조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이 조영한 풍영정을 위해 여러 인사들에게 풍영정에 관련한 시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의 후서만 보더라도 이황 뿐 아니라 周世鵬, 黃耆老 등과 같은 문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김언거는 이미 풍영정을 조영한 뒤 이를 알리고 이와 관련한 시문 청탁을 적극적으로 하여 풍영정 관련 시문 수집

4) 이황, 『退溪集』, 권43, <書周景遊題金季珍詩帖後>, “吾友金君季珍 嘗於京師 與余賃居同巷 謂余曰 吾舊家光之漆水上 臨水築亭 名之爲風詠 以寓吾志焉 遂出示諸公詩什 余亦續和之 因以知吾季珍之樂之所在也 頃年 季珍出爲商瓘州牧 州治亦有風詠樓 其名之偶合於家亭也 余固心異之 昨 季珍辱書來問於丹山 又寄一帖 披而讀之 則乃周君景遊詠此事 又自爲跋 而黃上舍耆老所書者也”

5) 기대승, 『高峰集』, 「兩先生往復書」 권2, <先生前上狀>, “在鄉時 因漆溪金正 伏聞寄聲 淡慰淡慰”

에 큰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16세기 걸출한 문사들의 차운시가 많이 남은 이유는 바로 이런 시첩을 모은 김언거의 적극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김언거의 시 수집의 적극성은 이후 퇴계의 또 다른 후서에도 드러나는데, 몇 년이 지난 뒤인 1552년 퇴계가 쓴 후서를 보면 “그로부터 5년 후인 지금 계진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계진이 다시 이 서첩을 보여주었으니 곧 그 뒤에 와 시를 화운한 자가 무려 수십여인으로 모두 당대의 문장가들을 선별한 것으로 무척 성대하였다”<sup>6)</sup>고 하였다.

이처럼 풍영정 축조 초기에는 김언거의 적극적인 시문 수집으로 많은 누정제영들이 모이는 한편 풍영정을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누정제영들은 현판으로 걸리게 되었고, 누정의 특성상 또 다른 차운시들을 낳아 압도적으로 많은 누정제영시를 보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언거 이후 풍영정 누정제영 작시의 배경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즉 풍영정 축조 초기 혹은 김언거의 생전에는 김언거의 적극적인 시문 수집으로 풍영정이 유명해지는 한편, 많은 누정제영들이 생성되었다면, 후기에 가서는 선대의 누정제영에 대한 후대 사람의 차운으로 누정제영들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풍영정은 그 위치가 세 고을을 지나는 길목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왔던 정자였다. 때문에 차운이 빈번한 누정시의 특성상 이에 따른 차운시들이 많았을 것이라 본다. 실제로 풍영정의 차운시들 중 후기로 갈수록 선대의 현판들 혹은 시문들을 보고 그 압도적인 수와 명현들의 이름에 감화를 받거나 이에 대한 소감을 푼 시들이 꽤 보인다.

이는 풍영정의 시문들이 전란으로 소실된 김언거의 시문과는 달리 후대까지 많은 수가 남아있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풍영정은 세 고을을 지나는 길목에 있는 한편, 명승지로 이름이 있어 당시 이 근방의 고을에 부임했던 대부분의 관인들은 연례행사처럼 풍영정을 찾아 송인수의 원운시에 차운을 했다. 이런 관인들의 빈번한 출입은 풍영정에 대한

6) 이황, 『退溪集』, 권43, <書金季珍風詠亭詩帖後>, “厥後五年 而今與季珍遇於京師 季珍復示以此帖 則 後來 屬其詩而和之者 無慮數十餘家 皆極一時文章之選 盛矣哉”

관의 원조를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런 관의 원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관의 보존에 많은 힘을 쓰는 모습이다. 16세기 이후, 즉 김언거 사후에 지어진 풍영정의 차운시들 중 관인들의 시들을 보면 풍영정에 와 선조의 글을 보고 쓴 차운시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조의 차운시들이 누락되었거나 혹은 현관이 훼손된 것을 애통해 하며 차운을 함과 함께 현관의 제작에 힘쓰는 모습이 보인다.<sup>7)</sup> 이처럼 이 근방의 관인들이 자신의 선조들의 현관이 훼손되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현관을 제작한 것은 자연스럽게 관 차원에서 풍영정의 시문을 관리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전란의 피해를 풍영정이 비교적 적게 입었기 때문이다. 사실 전란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할 수 있다. 전란으로 인해 김언거의 시문들이 거의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풍영정의 차운시들을 보면 실제로 병화로 인해 폐허가 되어 버린 이 고장의 모습에 대한 소회와 그 가운데 병화의 피해를 입지 않은 풍영정에 대한 안도를 읊은 시들이 꽤 많다.<sup>8)</sup>

7) 광산김씨칠계공과문중, 『風詠亭詩選』(호남문화사, 2007), “余宰雪山之五年 甲子季夏 與光山伯金學士澤之 長城伯金大博 潭陽伯李士謙 淳昌守趙而厚 會遊於光山之風詠亭 亭之主人 卽金氏也 壁上 先輩華楣極多 而吾六代祖禮曹判書南崖公題詠 獨在於亭之主人冊子中 而漏於題板 意者年代久遠 舊板傷朽破墜 而然矣 豈不慨然乎 謹次尾揭焉 謹次六代祖南崖公韻 後孫雪山宰公權謹次”, “余適以光山兼官 來遊斯亭 見高祖玄洲公 有板上韻 不勝感懷 謹次以諸 己未孟春 後孫 和順縣監 趙宗裕”, “余知州之數月 客有來言曰 先祖考郡守公 詩律揭板於治西風詠亭 而年久剝缺 只有詩律誦 而傳之 故不勝驚歎 命工鋟梓 以壽其傳 且敬次一律 以寓追慕之懷 庚申中秋下澣 六代孫 益在謹稿”

8) 광산김씨칠계공과문중, 『風詠亭詩選』(호남문화사, 2007), <次三首 癸卯伏月遇雨信宿都事金正南題>, “主人當日此歸休 人去亭空物色愁 兵火不能侵棟宇 世芬那得到滄洲 詠歸已遠風猶在 登眺聊因雨少留 霧後輕陰隨爽氣 滿簷松籟作冷秋” <次風詠亭韻> “今日愔愔昨日休 高亭一上百年愁 疏松老柳圍荒砌 浴鷺飛鳧戲晚洲 溪壑不曾隨世變 軒簷長爲護詩留 (亭經兵亂不火諸賢懸極宛然) 仙區勝賞無時了 莫較冬春與夏秋”, <風詠亭 次壁上韻>, “憶昨南州戰不休 荒墟到處揔堪愁 羨君卜築傳三世 依舊風煙護一洲 松籟嘯簷山雨過 竹陰籠砌野禽留 蒲團聽說閑居味 十頃黃雲大麥秋” 등이 있다.

### 3. 풍영정 차운시의 시기별 양상

누정의 현판은 누정제영 중에서 작자의 유명도나 문장의 수려함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할 만한 것을 판액 해 누정에 전시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현재 풍영정에 걸려 있는 현판은 약 60여판 정도 되며, 현판의 시들을 모아 번역 정리한 『風詠亭詩選』에는 총 77편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 본고에서는 이 77편의 차운시들을 중심으로 개관하여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풍영정의 차운시가 다른 누정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80편가량 되는 차운시가, 모두 宋麟壽의 원운시의 운자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누정 제영은 원운시와 차운시가 기본 형태이지만, 유래가 오래되고 유명한 누정일수록 방문하는 인물들이 많을 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교류하는 인물들이 있어 원운시의 운자 외의 시에도 차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풍영정은 그 유명세와 압도적으로 많은 차운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모두 송인수의 운자에만 차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풍영정 차운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송인수 원운시의 특성과 차운하는 인물들의 시대별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半日偷閒萬事休	한나절 한가한 틈 타 만사 제쳐두니
天涯春色迥添愁	하늘 끝 봄빛이 멀리 시름을 더하네.
山圍遠近桃花洞	산은 멀고 가까운 도화동을 에워싸고
水散東西杜若洲	물은 동서로 도약꽃 핀 물가에서 흩어지네.
侍從久虛難痕迹	시종의 자리 오래 비우면 흔적이 어려우니
林泉雖美莫淹留	임천이 비록 아름답지만 오래 머물 수 없다네.
白頭如我歸田晚	나와 같은 늙은이 귀전이 늦었으니
張翰孤舟不待秋	장한의 외로운 배 가을을 기다릴 수 없지. <sup>9)</sup>

9) 광산김씨칠계공파문중, 『風詠亭詩選』(호남문화사, 2007). 이후 인용된 시들은 『風詠亭詩選』에서 인용하되, 각 개인문집을 참조하여 오자, 탈락자를 참고하여 인용한다.

위의 시는 宋麟壽의 풍영정 원운시이다. 운자는 愁, 洲, 留, 秋이며 사용된 고사는 洛陽에서 벼슬살이를 하다 가을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고향 吳中의 순채국과 농어회의 생각이 일어 바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쯤나라 때의 문신 張翰의 고사이다. 운자에서 화자의 심경이 드러나는 글자는 愁로 시의 주요 소재는 시름과 장한의 고사로 드러나는 시름으로 인한 귀전에의 열망 표출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특이한 점은 전형적인 시름해소의 공간인 누정을 방문 하였으나, 귀전에의 열망과 귀전을 이루지 못하는 시름의 재확인되는 모습으로 시름과 장한의 고사가 사용된 것이다. 누정은 대체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운자 愁로 드러나는 작자의 시름은 대체로 누정을 통해 풀리는 형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 시에서 풍영정은 귀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며, 귀전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장한의 고사는 풍영정을 수식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기보다, 풍영정에서 발흥된 자신의 시름을 표현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송인수의 원운시와 운자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歸田과 운자 愁인 시름이다. 송인수의 원운시에서 보이는 귀전과 시름은 누정을 자신의 시름을 완전히 씻어내 주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귀전에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귀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는 일시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시름에 대한 일시적 해소 혹은 머물 수 없는 일시적인 공간이라는 이미지는 다른 누정제영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런 머물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일시성은 송인수의 시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풍영정의 다른 차운시에서의 시름은 대체로 해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머물 수 없는 시름을 보인 차운시들의 수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 시름 해소를 보이는 시들에도 이런 일시성이 보이는 시들이 많다. 이는 단순히 원운시의 영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차운시를 쓴 작자들의 유형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풍영정은 현재도 약 70여편의 현판이 누정에 걸려있어 장관을 이

루고 있다. 누정 시 중 차운시는 그 수가 후대로 갈수록 많아지고 그에 따라 걸린 현판의 수도 비례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후대로 갈수록 누정의 한 경관이 되어버린 현판을 주제로 한 차운시가 증가한다. 때문에 차운시들을 시기별로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송인수의 원운시에서 읽을 수 있었던 주요 키워드인 귀전과 시름, 그리고 후대 시들에 많이 보이는 현판, 이렇게 세 주제를 중심으로 풍영정 축조 초기인 16세기, 중기인 17세기, 그리고 후기인 18세기 이후 시대별로 나누어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 1) 16세기 : 歸田에 대한 열망

누정은 대체적으로 속세를 떠나 기거하는 이상향의 이미지가 강하다. 때문에 누정시에는 누정을 현실과 차별되는 이상향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두는데, 이런 장치들은 누정을 仙界로 승격시키기도 하고, 그윽한 풍취가 풍기는 隱者의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며, 도학자들의 修己의 공간으로, 또 한편으로는 隱居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을 그리는 선비의 공간으로 그린다. 대체로 이런 장치는 용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풍영정의 차운시에서도 또한 이런 누정시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본 장에서 파악한 귀전은 앞서 말한 은거와 상통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런 귀전이 풍영정을 통해 채워지는 형태가 아닌 귀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깨닫고 그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거나, 혹은 그러지 못하는 상태를 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송인수의 원운시에서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귀전의 열망을 나타내는 시에 많이 보이는 장한의 고사도 송인수의 원운시에서 알 수 있듯이 풍영정을 꾸미는데 쓰이기보다 귀전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열망을 드러내는데 사용된다.

누정 축조는 이상향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이며, 따라서 누정은 이상향이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공간이다. 누정 축조의 원인이 유배이든 당과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퇴거한 것이든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이든 누정 공간

은 모든 것이 충만한 이상향으로 기능한다. 풍영정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차운시들도 물론 있지만, 특이할만한 점은 앞서 본 송인수의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귀전이 풍영정을 완성체로 만드는데 쓰인다기보다 풍영정을 통해 자신의 귀전에의 열망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귀전에의 열망을 드러내는 시들은 전 시기에 걸쳐 보이긴 하지만, 주로 16세기에 많이 보인다. 이는 개관에서도 말했듯 축조과정을 보거나 들은 정자주인인 김언거와 직접적인 교류를 했던 인물들이 16세기에 많고, 직접 방문을 해서 썼던 시들이라기보다 김언거의 부탁으로 풍영정을 보지 않고 쓴 시들이 다른 시기보다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17세기에 귀전을 소재로 쓴 시들에는 주로 이 지역을 부임한 관료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문사인 경우들이라, 풍영정 차운시에서의 귀전은 대체로 아직 이루지 못한 자신의 귀전에 대한 열망으로 드러난다.

본고에서 주요 대상으로 하는 현판에 남아있는 차운시들을 중심으로 16세기 무렵에 지어진 차운시들의 수는 총 18편이다. 원운시를 쓴 宋麟壽를 비롯하여 김언거와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인 李滉, 宋純, 周世鵬, 宋欽, 蘇世讓, 柳希春, 奇大升, 高敬命, 申光漢, 宋益憬, 李士弼, 鄭士龍 등이 다. 이들은 대부분 김언거와의 교류관계로 인해 시를 남긴 인물들이 많고, 이 지역 관료가 되어 정자를 방문해서 그러한 소감을 편 인물들은 都事였던 이사필, 전주부윤인 오겸, 관찰사를 지낸 신용시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 중 이황이나 정사룡 鄭應斗, 閔箕 등의 시를 보면 이들은 풍영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자를 지었다는 소식과 다른 이들의 시를 보고 지은 차운시들이다. 풍영정에 직접 오른 것이 확실한 시는 송순, 주세붕, 기대승 정도이다. 이들의 시는 풍영정 작명 연유인 증점의 고사<sup>10)</sup>를 인용하여 시름 해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sup>11)</sup> 주로 송인수의 시처럼 귀전의 열

10) 『論語』, 「先進篇」, “曰 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八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 喟然嘆曰 吾與點也”

11) 周世鵬, “可休休處好休休 鳧鶴俱懷斷續愁 雲却無心橫遠嶺 草多生意滿芳洲 極知靈運耽山水 還有淵明任去留 早晚浴沂鏗點瑟 肯教花月負春秋”, 申光漢, “浮世經營死便休 百年何地散幽愁 未携綠醕高亭上 幾夢春風芳草洲 捨瑟定成曾點詠 開襟不

망을 드러내는 경향이 가장 많다. 이황과 정사룡은 정자를 지었다는 소식에 귀전에 대한 도학자적 의무, 혹은 욕구에 대한 담담한 술회를 보이<sup>고</sup>12), 오겸과 민기, 이사필과 같은 경우는 고단한 관료의 생활로 풍영정으로 인한 귀전에의 욕구를 서술하기도 한다.<sup>13)</sup> 이런 귀전에의 욕구는 원운시에 보이는 귀전에의 영향도 있겠으나, 대체로 김언거의 행위를 직접 전해 듣거나 보았던 교유인이나 관료이었던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風塵擾擾不能休	속세가 어지러워 쉴 수가 없었더니
襞積胸中萬斛愁	가슴속에 많은 걱정이 차곡차곡 쌓였구나.
枌社感君新結屋	고향에 새로 집 짓는 그대에 감동하여
湖田憶我舊耕洲	호수가 밭 예전 사주를 갈던 내가 기억난다.
欲歸陶令猶難去	도령처럼 돌아가려 하나 오히려 떠나기 어렵고
思退錢公常自留	전공마냥 물러남을 생각하나 항상 스스로 머물었네.
異日相逢俱可罰	후일에 서로 만나면 모두 꾸짖을 만하네.
年年虛負好春秋	해마다 좋은 시절 헛되이 저버렸으니

위 시는 退溪 李滉이 쓴 시이다. 풍영정이 지어진 초기인 16세기의 차운시이다. 귀전의 욕구를 나타내는 장치로 장한과 증점의 고사가 비교적 많이 쓰이는데, 그에 못지않게 등장하는 것이 평생의 대부분을 은일하며 살아온 陶淵明이다.<sup>14)</sup> 위 시에도 청나라 초기 문인인 錢謙益과 함께 도연

似仲宣留 逍遙早已知安分 計晚蓴鱸却爲秋”，

12) 李滉, “風塵擾擾不能休 襞積胸中萬斛愁 枌社感君新結屋 湖田憶我舊耕洲 欲歸陶令猶難去 思退錢公常自留 異日相逢俱可罰”, 鄭士龍, “已迫桑榆未辦休 眉頭日日鎖閑愁 倦蜚憐我方尋樹 小築多君正倚洲 澡浴但當三月暮 御風安用五旬留 聖門氣像嗟寥絕 遺興于今嗣幾秋”

13) 吳謙, “與君何日得歸休 回首千邊歲暮愁 身繫黃堂朱綬紱 心遊滄海白鷗洲 常憐表聖三宜去 亦恥淵明五斗留 我欲先行公待滿 共將雞黍送殘秋”, 閔箕, “晚節功名合退休 清波何處可滄愁 聞君宅近漆溪水 語我亭臨芳杜洲 投笏擬將歸隱逸 割雞焉得久淹留 田廬無地吾堪築 白髮紅塵今幾秋”, 李士弼, “十載名途苦未休 高亭一上起閑愁 暮山春興迷烟野 竹屋寒光帶鷺洲 世事當年悲汨沒 功成他日此淹留 笙歌迥發杯心凸 斗覺胸襟拂素秋”

14) 도연명을 용사한 고사들은 도연명과 은일로 유명한 다른 명사들과 함께 많이 쓰

명을 용사하여 귀전에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황의 시도 풍영정에 직접 오르지 않고, 풍영정이 지어진다는 소식만 접한 채 쓰여진 시이다. 때문에 이황의 시는 풍영정 자체보다는 고향에 돌아가 풍영정을 지었다는 김언거의 행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여전히 속세에 머물고 있어 시름이 끊이질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수련에서 시작해서 고향에 돌아갔다는 벗의 소식에 과거 고향에서 유유자적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이런 추억을 도연명과 전겸익의 용사를 통해 귀전에의 열망으로 함련과 경련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련에서는 과단성 있게 귀전을 실행치 못한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이 시에서 풍영정은 귀전을 하는 행위의 실현 그 자체로 그려진다.

已迫桑榆未辦休	이미 만년이 닳았으나 퇴휴하지 못하고 있으니
眉頭日日鎖閑愁	눈썹머리는 날마다 실없는 근심에 잠기네.
倦飛憐我方尋樹	관직에 지쳐 가련하게 내 방금 나무를 찾았는데
小築多君正倚洲	뛰어난 그대의 작은 건물 바로 물가에 자리했다네.
澡浴但當三月暮	목욕하는 덴 마땅히 삼월말경이 좋다하지만
御風安用五旬留	바람 타는데 오십일이나 머무를 필요 있겠는가?
聖門氣像嗟寥絕	공자 문하의 기상은 아! 적막히 끊어졌으나
遺興于今嗣幾秋	끼친 감동은 지금까지 몇 년을 이어왔나?

위의 시는 16세기에 지어진 鄭士龍이 쓴 차운시이다. 정사룡의 문집인 『湖陰雜稿』에 제목이 ‘送季珍使君赴商州’인 것을 보면 이 시 역시 정사룡이 직접 풍영정에 들러 쓴 것이 아니라 주인 김언거가 상주목사로 있던 시절 풍영정에 대한 시문을 수집하면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퇴계의 시와 비슷하게 귀전의 실현체인 풍영정을 통해 귀전의 열망을 담담히

이며 귀전을 드러낸 시에만 쓰이지는 않았다. 蘇世讓, “可休休處好休休 鳧鶴俱懷斷續愁 雲却無心橫遠嶺 草多生意滿芳洲 極知靈運耽山水 還有淵明任去留 早晚浴沂鏗點瑟 肯教花月負春秋”, 吳謙, “與君何日得歸休 回首天邊歲暮愁 身繫黃堂朱綬絨心遊滄海白鷗洲 常憐表聖三宜去 亦恥淵明五斗留 我欲先行公待滿 共將雞黍送殘秋” 洪命一, “偶解征鞍到此休 風乎千載又消愁 簾褰謝朓青山雨 軒挹陶潛碧柳洲 十里前郊春色滿 扁舟孤棹暮烟留 吾行知有仙緣在 一洗塵襟爽欲秋” 등이 있다.

풀어내고 있다. 퇴휴하지 못하는 신세에 대한 근심으로 시작해서 함련에서는 풍영정을 찾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 풍영정을 방문하지 않았기에 풍영정의 정경 묘사는 자세하지 않고 다만 풍영정 주인처럼 퇴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雲無心以出岫，鳥倦飛而知還”를 용사하여 표현하였다

浮世經營死便休	덧없는 세상 경영 죽어서나 그칠 터
百年何地散幽愁	평생의 깊은 시름 어디에서 떨쳐낼까?
未携綠醕高亭上	좋은 술 들고서 높은 정자에 오르지 못한 채
幾夢春風芳草洲	봄바람 부는 방초주를 몇 번이나 꿈꾸었던가
捨瑟定成曾點詠	비파 놓아두고 증점처럼 시 읊기로 정했으나
開襟不似仲宣留	옷깃 풀어두어도 중선의 머무름과 같지 않으리
逍遙早已知安分	이리저리 다니며 일찍이 이미 안분할 줄 알아서
計晚蕙鱸却爲秋	만년에 고향에 돌아가려는데 또 가을이 돼버렸구나

위 시는 申光漢이 쓴 차운시이다. 이 시도 역시 16세기경에 쓰여진 것이다. 정자에 오르지 못했기에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시름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에서는 풍영정의 이름에 배경이 되는 『논어』, <先進篇>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알아주는 자가 나타나면 어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봄옷을 지어 입고 기수가에서 목욕하고 시를 읊으며 돌아오고자 한다고 대답했던<sup>15)</sup> 증점의 고사를 인용하여 귀전의 옥구를 드러낸다.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며 안분자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장한의 고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장한의 고사가 송인수의 원운시에 용사되어 차운시에 많이 쓰였다면 증점의 고사는 누정의 명칭이 갖는 이미지가 공간의 이미지가 되어 많이 쓰인 경우이다. 수련에 덧없는 세상에 죽어서나 끝날 시름은 함련에 몇 번이나 방초주를 꿈꾸나 정작 오르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와서 더욱 절절

15) 『논어』, <先進篇>, “點爾 何如 鼓瑟希 鏗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 六人 童子六 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 喟然嘆曰 吾與點也”

해진다. 여기에 풍영정이라는 이름을 통해 발흥되는 증점의 고사는 귀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早欲歸休久未休	진즉 돌아가 쉬려 했지만 오래도록 쉬지 못했는데
聞君亭號便忘愁	그대의 정자 이름을 듣고 문득 시름을 잊었노라
光風長起青蘋末	비 갠 뒤 바람은 푸른 부평초 끝에 길게 일어나고
漆水遙分白鷺洲	칠천수는 멀리 백로의 모래섬을 가른다.
樂事難追先輩遠	즐거운 일은 선배들이 멀어 뒤따르기 어렵지만
良辰還與好懷留	좋은 시절은 좋은 생각이 남아 돌아보며 함께하네.
行成春服相隨去	봄옷을 지어 입고 서로 따라 가기도 하고
肯爲蓴鱸更待秋	즐거이 순채국 놓어회 먹으려 다시 가을을 기다린다.

위 시는 兵曹參判 丁應斗가 쓴 시이다. 역시 풍영정이 지어진 시기인  
16세기경에 쓰인 시이다. 이 시의 수련을 보면 역시 풍영정에 직접 오르  
고서 쓴 시는 아니고, 김언거가 풍영정에 대한 시문을 모으는 과정에서  
쓰여진 시인 듯하다. 이 시는 귀전에의 욕구를 드러내는 시들이 자주 사  
용하는 장한의 고사와 증점의 고사 모두를 미련에 사용하였다. 앞의 신광  
한의 시만큼 귀전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시름이 강렬한 것은 아니지  
만, 수련에서 잊혀진 시름은 함련에 풍영정을 그린 다른 시편들을 통해  
상상되는 풍영정의 수려한 경관들로 인해 다시 미련에서 귀전에의 열망으  
로 발현된다.

晚節功名合退休	만년에 공명이란 물러나 쉬는 것이 적합한데
淸波何處可瀟愁	맑은 물결로 어디서 근심 씻어내기 좋을까?
聞君宅近漆溪水	그대의 집이 칠계수에서 가깝다 들었는데
語我亭臨芳杜洲	내게 정자는 두약꽃 피는 물가라 말했지.
投笏擬將歸隱逸	사직하고 돌아가 은거하려 해야려 생각하니
割雞焉得久淹留	하찮은 관원이 어찌 오래 머물 수 있겠나?
田廬無地吾堪築	시골집에 땅 없어도 내가 지어내야 하련만
白髮紅塵今幾秋	백발로 속세에 묻힌 지 이제 몇 년이던가?

위의 시는 16세기에 제작된 閔箕의 시이다. 앞서 본 시들과 마찬가지로 귀전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실현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16세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시들과 같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김언거에 의해 수집된 시이다. 오랜 관직 생활로 지친 마음을 풍영정 주인처럼 물러나 고향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신세를 근심하고 있다. 함련에서 김언거에게 들은 풍영정 정경을 그대로 서술하며 수련에서 바랐던 근심을 씻어낼 만한 이상적 공간인 풍영정에 대한 기대와 감흥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대와 감흥은 다시 경련과 미련에서 관직에 묶여 백발로 속세에 묻힌 자신의 현실에 대한 좌절로 연결된다.

이렇게 16세기의 시들은 주로 직접 방문을 하지 않은 채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풍영정을 지었다는 소식에 흥기된 자신의 귀전에 대한 열망을 소화하는 것이 많다. 물론 17세기에도 역시 귀전을 주제로 한 시들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직접 방문한 경우가 많아 자세한 풍경묘사가 보이며, 단순한 귀전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열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영정에 지속해서 머무를 수 없음에 대한 근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차이이다. 직접 방문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일 것이다.

亭下長流流不休	정자 아래 긴 강물 흐르기를 쉬지 않고
亭前大野鳥飛愁	정자 앞의 큰 들에 새는 근심 날려버린다
苔深石罅迷危逕	이끼 성한 돌 틈으론 위태로운 길 아련하고
水淺蘆叢露小洲	물 얕은 갈대숲에는 작은 모래섬 보이네.
滿壁瓊瑤人去盡	옥구슬 같은 시 벽에 가득한데 시인은 간 데 없고
一江風雨客淹留	온 강에 부는 비바람이 객을 오래 머물게 한다.
無端起我蓴鱸興	뜻밖에 나에게 순챗국과 농어회의 흥을 일으키니
張翰歸舟不待秋	장한이 배로 돌아가던 가을을 기다리지 않네.

위 시는 1613년에 都事 金止南이 쓴 차운시이다. 김지남은 총 같은 해에 3수의 차운시를 썼는데, 한꺼번에 3수를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 이 시는 그 중 3번째 시이다. 이 시에서도 역시 풍영정을 통해 장한의 고사가

주는 흥이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전대의 시들과 차별되는 점은 우선 풍영정의 구체적인 절경 묘사와 풍영정에 머물 수 없음에 의해 蕙鱸의 흥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앞의 개관 에서 17세기의 차운시들에서 머물 수 없음에 대한 시들이 많다고 했듯이 시 또한 그러하다. 송인수의 원운시에서도 이런 머물 수 없음으로 인해 귀전이 유발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방문하고 방문하지 않고의 차이 때문이다. 위의 시도 이 지역 도사로 부임하여 풍영정에 오른 객의 입장에서 쓰인 시로 아름다운 풍영정 절경에 날려 보낸 시름은 떠나야 하는 객의 발목을 잡는 비바람으로 인해 현판으로 시선이 옮겨갔다가, 현판의 내용과 그 주인공들로 인해 귀전에의 열망,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에 대한 회한으로 마무리 된다.

竊祿三年可便休	녹 축낸 삼년 만에야 편히 쉬게 되는데
並州離恨亦堪愁	제이의 고향 떠나는 한도 근심스럽구나.
同來花柳春光裡	꽃 버들 봄 경치 속에 함께 와서
共賞風烟白鷺洲	바람 불고 안개 낀 백로섬 함께 즐긴다.
病眼欲揩先達句	병든 눈으로 선배들 시구를 닦고자 하니
新詩敢爲後人留	새로 지은 시 감히 후인에게 남기랴?
區區三子各言志	구구한 삼자들은 각기 뜻을 말하였지만
吾意惟思張翰秋	내 생각은 오직 장한의 가을 뿐이라네.

위 시는 1611년경에 奇協이 지은 시로 조만간 관복을 벗고 북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몇몇 고을의 인사들과 함께 와서 차운하였다는 내용의 제목 [將投紱北歸 與數三邑儒 同來登眺敬次壁上韻] 이 붙어있다. 앞의 김지남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부임한 관료의 입장에서 쓰인 시이다. 김지남은 비바람에 떠나야 하는데 발이 묶인 객으로 작자의 처지를 표현했다면 이 시는 좀 더 구체적이다. 부임한지 3년 만에 지난한 객지의 관료 생활이 끝났지만 역시 이곳을 떠나는 것 또한 시름이 된다. 떠나기 전 몇몇 인사들과 귀전의 상징인 풍영정에 들르니 역시 장한의 가을 생각만 가득할 뿐이다. 역시 머물지 못함의 시름이 풍영정을 통해 귀전으로 귀결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귀전에의 열망을 그리는 시들은 시대 전반에 걸쳐 보이지만, 16세기의 차운시에 그 빈도가 가장 빈번하다. 잠깐 살폈듯 그 이후의 시들에는 주로 부임한 관료들에게서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귀전의 열망은 다시 머물 수 없음에 대한 시름으로 연결된다. 앞서 살폈듯이 16세기에는 김언거의 생전 교류했던 인물들이 많고 풍영정을 방문하지 않고 쓴 인사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 2) 17세기 : 시름의 표출

17세기에 지어진 차운시의 수는 80여편 중 가장 비중이 많은 35편이다. 17세기에 지어진 시들은 송인수의 원운시에서 보였던 주요 키워드인 시름과 귀전을 주요 소재로 한다. 하지만 앞서 봤듯 귀전의 열망은 대체로 시름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미 많은 차운시들이 모여 관액의 형태로 남겨진 풍영정의 또 하나의 절경인 현관을 언급한 시들 또한 보인다. 이는 16세기 보다 직접 풍영정을 방문한 작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풍영정 제영의 운자 중 함련의 운자가 바로 ‘愁’이다. 즉 풍영정 차운시를 볼 때 풍영정 공간 안에서 시름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차운시 개관에서 살폈듯이 풍영정 차운시에서 시름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보편적 누정의 기능에 충실한 해소되는 시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곳에 머물 수 없음에[不留] 해소되지 못하는 시름으로 나뉜다. 이 해소되지 못하는 시름은 머물 수 없어 해소되지 못하는 시름이 귀전으로 귀결되는 면에서 귀전에의 열망을 일으키는 것과 그 양상이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귀전에 귀결되지 않고 시름에 더욱 치중한 면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앞서 봤듯 17세기 이후의 시들에서 많이 보인다.

물론 16세기의 시들에도 시름을 주제로 한 시들이 있다.

可休休處好休休    설만한 곳에 쉬기가 좋아 쉬면서  
 鳧鶴俱懷斷續愁    오리와 학을 함께 생각하며 쌓인 근심을 끊네  
 雲却無心橫遠嶺    구름은 또 무심히 먼 산봉우리 가로지르고  
 草多生意滿芳洲    풀은 매우 생기를 띤 채 꽃 핀 물가에 가득하다  
 極知靈運耽山水    사령운이 산수를 탐했던 것을 잘 알았으니  
 還有淵明任去留    도연명의 거류에 맡김을 다시 두겠네.  
 早晚浴沂鏗點瑟    조만간 기수서 목욕하고 증점의 비파를 타며  
 肯教花月負春秋    기꺼이 꽃과 달에게 봄가을을 맡게 하리.

위 시는 蘇世讓이 쓴 차운시이다. 16세기경에 쓰여진 시이다. 산수시의 대가인 사령운과 은일 시인 도연명, 그리고 증점의 고사가 모두 용사되었지만, 이 시에서는 앞의 귀전의 열망을 추구하던 시들과는 매우 달리 가볍게 시름을 끊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산수를 즐겼던 사령운과 去留에 연연하지 않았던 도연명, 그리고 안분하는 증점의 흥취를 풍영정을 향유하면서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누정을 통해 시름을 끊어내고, 이상적인 흥취를 느끼게 되는 전형적인 누정체영의 모습을 하고 있다. 즉 이 시에서 풍영정 공간은 세속에서 쌓인 시름을 끊어낼 뿐 아니라, 그 공간을 향유하는 이를 사령운, 도연명, 그리고 증점이 되게 하는 이상향이다.

柳承善의 차운시에서도 풍영정을 당나라 시인 司空圖가 지은 三休亭에 비견하면서, 증점의 고사를 용사하며 시를 읊느라 밤낮을 잇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위의 시와 동일하게 풍영정 공간을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는 시름을 털 수 있는<sup>16)</sup> 공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름을 털 수 있는 공간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遊山羈客不能休    산에 노는 나그네 쉬지 못하다가  
 偶到仙滄一散愁    우연히 선창에 이르러 시름을 풀었노라  
 風約林梢呈遠野    바람은 숲 끝에 불어 먼 들에 보내고  
 烟開波浪露長洲    안개는 물결에 걸쳐 긴 모래톱 드러나네

16) 柳承善, “高亭新構擬三休 倦客初登散四愁 宛轉蒼龍來北嶽 漣漪翠浪上南洲 在人爵祿無多取 招我冠童此可留 崖幘吟詩忘日夕 竹林蕭颯別生秋 ”

塵埃只恨三山隔 풍진 속에 삼신산 막혀 한스러울 뿐이니  
 樽酒何妨半日留 동이 술에 한나절 머문들 어떠하리  
 人事悠悠難自了 사람의 일 유유해서 마치기 어려우니  
 故應來賞待高秋 응당 와서 늦가을 완상하리라

위 시는 奇大升의 차운시이다. 이 시에서 시름 풀기는 일시적일 뿐이다. 처음부터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상정되어 있어 그곳이 仙滄이더라도 도착하게 된 원인 또한 우연한 것이므로 다시 떠나야 하는 처지이다. 경련에서 시름의 원인이 나타나니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삼신산이 풍진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풍영정이 아무리 선창이라도 나그네의 목적지인 삼신산이 아니다. 수련에서 풀렸다는 시름은 온전히 풀린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풍영정은 끝없는 人事 사이에 가끔씩 와 잠시 쉬어가는 공간일 뿐이다. 이렇게 운자의 하나가 “愁”이기 때문에 역시 16세기의 시에도 해소되거나 되지 못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가 귀전의 열망을 토로한 시들에 비해 적다.

17세기 차운시 작자들은 대부분이 관인 신분이다. 관인의 신분으로 제작된 시에는 벼슬살이의 고단함을 시름으로 토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전자는 대체로 지역에 부임한 신분으로 관례행사처럼 올랐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16세기 차운시들의 작자들도 관인 신분이지만, 그들은 일차적으로 정자를 지은 김언거와의 교유가 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반면, 17세기의 인물들은 명승지에 들러 관례처럼 차운시를 남긴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앞서 살폈듯이 이 지역에 부임한 인사들의 관례행사처럼 제작하거나, 광주, 나주, 장성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타향에서 벼슬살이의 고단함에 대한 시름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李安訥, 朴東說, 金止南, 趙啓遠, 奇協, 鄭斗源, 吳遂采, 李景義, 呂必容 등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權鞞, 沈諱, 鄭弘溟, 柳馨遠, 安邦俊, 趙纘韓, 睦長欽, 柳承善, 李行遠, 李聖求, 金克恒, 梁慶遇, 李昭漢, 洪命一, 高傳川,

洪命亨, 金鑑, 李一相, 李時昉, 申翊全 등이다. 우선 부임한 관료이든 지나가는 문사이든 대체로 이들에게 있어 풍영정은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다. 이는 송인수의 원운시에서도 보이며 16세기의 이 지역에 부임한 관료들의 시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17세기에서 부터는 이런 머물 수 없음에 대한 심상이 시름을 통해 드러난다. 우연히 오른 정자로 인해 관직을 버리고 싶은 욕구가 분출되기도 하고<sup>17)</sup>, 삼년만 녹만 축내다 드디어 임기가 끝나 귀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에 장한의 가을 생각뿐이기도 하다.<sup>18)</sup>

擾擾勞勞何日休	혼란하여 고달프고 고달프니 언제나 쉴까?
暫憑欄檻寫閑愁	잠시 난간에 기대어 괜한 근심을 털어낸다.
醉中快意風生閣	누각에 바람 부니 취중에도 기분 상쾌하고
客裏奇觀雨滿洲	온 섬에 비 내리니 객중의 기이한 광경이라.
泉石不隨前輩去	내와 바위는 선배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物華應爲老夫留	경치는 응당 이 노부를 위해 머무른 것이라.
詩成還愧江神笑	시는 지었어도 도리어 강신이 웃을까 부끄럽고
未脫塵冠鬢已秋	속세의 의관 벗지도 못했는데 귀밑은 이미 가을이네.

위의 시는 앞에서 본 1613년 김지남의 시 중 첫 번째 시이다. 공무에 시달리다 잠깐 짬을 내 들른 풍영정에 비가 와 예정보다 오래 머물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시는 예정보다 오래 머물게 되면서 떠나야 한다는 객의 심정이 귀전으로 귀결되었다면, 첫 번째시는 잠깐 짬을 내 오른 풍영정에 시름이 털어지고, 거기에 비가 오니 절경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런 절경에도 자신이 지은 시는 풍영정에 걸린 선현들의 시에 비해 초라하고, 속세의 의관은 아직 벗지 못했는데 이미 하얗게 세어버린 것을 깨닫는다.

풍영정에 올라 절경을 보면서도 시름이 모두 해소되지 못하고 현실에

17) 李安訥, “憶昨南州戰不休 荒墟到處摠堪愁 羨君卜築傳三世 依舊風煙護一洲 松籟嘯簷山雨過 竹陰籠砌野禽留 蒲團聽說閑居味 十頃黃雲大麥秋”

18) 奇協, “竊祿三年可使休 並州離恨亦堪愁 同來花柳春光裡 共賞風烟白鷺洲 病眼欲揩先達句 新詩敢爲後人留 區區三子各言志 吾意惟思張翰秋”

메여있는 것이다. 수련에 공무에 혼란하고 고달과 언제나 설까하는 생각은 절경을 눈앞에 두고 난간에 잠깐 기대 시름을 풀어내는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련의 생각은 풍영정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미련에 退休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대로인데 이미 나이를 먹어버린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때문에 위 시에서 털어낸 시름은 매우 일시적이다.

이처럼 개관에서 봤듯이 해소되는 시름도 일시성을 강하게 띠는 시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시들은 대체로 17세기의 시들에서 많이 보인다. 그것은 16세기와 달리 직접 방문은 늘었으나, 대체로 관료들이나 풍영정을 일시적으로 들른 문사들이 대부분이고, 동시기 지어진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과 달리 정기적으로 모여 누정을 방문하는 문사들의 집단이 비교적 드물었기 때문이다. 즉 차운시의 작자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시성은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驄麻行行故暫休	청총마 타고 계속 가다가 짐짓 잠시 쉬면서
江樓徙倚滌塵愁	강루를 거닐면서 속세의 근심을 씻는다
茫茫列岫圍平野	아득히 늘어선 봉우리들은 평야를 에워싸고
兩兩飛禽弄晚洲	쌍쌍이 나는 새들은 석양의 사주에서 흥겹게 논다
先輩風流俱寂寞	선배들의 풍류는 다함께 적막하건만
名區物色尙分留	이름난 곳의 풍경들은 아직도 분명히 남아있다
王程此日難乘興	공무로 온 길이라서 오늘은 흥을 낼 수 없고
慘目西疇未有秋	서주를 슬피 바라보니 아직 가을이 들지 않았네

위 시는 1693년에 呂必容이 쓴 차운시이다. 이 시 또한 머물 수 없음에 대한 시름이 나타나는데, 시름에 대한 원인은 바로 공무 때문이다.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쉽없이 말을 몰고 어디론가 떠나는 관인의 신분은 수련에서처럼 강루를 만나 잠시 쉬는 정도 밖엔 시름을 풀 방도가 없을 것이다. 함련에서 표현된 것처럼 수려한 경치를 보고 있어도 다시 공무로

온 길임을 상기하고 일어난 흥을 접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수련에서 씻긴 시름은 다시 미련에서 슬픈 심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일시성으로 인해 깊어진 시름은 결국 속세를 벗어날 순 없지만 이곳에 조금이나마 오래 머무르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이미 백발이 되버린 세월을 탓하기도 하고,<sup>19)</sup> 자주 이곳에 들러 시름을 씻으려 하면서도 취중에도 나라에 대한 시름을 떨쳐내지 못하며 풍영정 앞 강 달빛에 슬퍼하기도 한다.<sup>20)</sup>

駐馬名區盡日休	명승지에 말 매어두고 온 종일 쉬는데
望中何事巧生愁	조망 중에 웬일인지 공교롭게 근심이 생긴다.
寒雲半壓龜鼉窟	찬 구름은 자라와 악어굴을 반쯤 누르고
宿雨猶昏鷗鷺洲	장마는 여전히 갈매기와 백로 섬을 어둡히네.
一老風流無處問	한 노인의 풍류는 물을 곳이 없지만
諸賢名姓滿亭留	선현들의 성명은 정자에 가득 남아있네.
編詩便欲傳奇蹟	기이한 자취 전하고자 시를 엮으니
與子相期歸去秋	그대와 가을을 기약하고 돌아가노라

이 시는 1609년 睦長欽 이 쓴 시이다. 역시 명승지인 풍영정에 와 말 매어두고 하루종일 쉬어도 떠나야 하는 객의 마음은 절경을 대하면서 도리어 근심으로 발현된다. 수련의 공교로운 근심은 함련의 비오는 풍영정의 절경과 경련에 선현들의 발자취인 현판으로 가득한 풍영정으로 인해 미련에서 시로 자신의 자취 남기고, 가을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맺는다. 이 시에서 풍영정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시름스러운 곳이다. 화자는 이런 일시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현들이 했던 것처럼 이곳의 아름다운 자취를 만세토록 남길 수 있게 시를 써 남기고, 가을에 다시 오겠노라 기약하는 것이다. 이런 머물 수

19) 權輶, “勝日淸尊醉卽休 對君無地可言愁 依然路入桃花洞 忽復詩成芳草洲 塵土自憐長局促 登臨何惜少遲留 世間好會元難剋 更耐吾生鬢已秋”

20) 高用厚, “鞍馬浮生不暫休 高亭出宿散離愁 飛飛旅雁下遙野 歷歷寒煙生遠洲 親友摠傷遊子去 淸歌偏得暮雲留 梅窓醉臥未能寢 江水夜鳴如別秋”

없음에 대한 시름은 朴弘立의 시에서도 풍영정에 소요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봄비에 물이 불어 나가지 못할까 걱정하는 머물 수 없는 자의 근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21)</sup>

또한 후자의 경우로 시름을 분출하기도 한다. 누정은 속세에 벗어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름은 누정과 속세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풍영정의 차운시에서도 이런 시름 해소는 일시성이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심상이다. 곧 떠나야 하는 관료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문사들이 17세기에 지어진 차운시 작자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잠시 오른 것이긴 하지만, 벼슬에 메여있는 시름을 벗어나게 해주기도 하고<sup>22)</sup> 바쁜 일상에 쌓인 오랜 근심을 잊게 해주거나<sup>23)</sup>, 마침 만난 풍영정으로 여행객의 피로와 시름을 씻어주기도 한다.<sup>24)</sup>

此生於世任浮休	이 일생 세상에 부휴를 맡기고
勝地登臨一散愁	승지에 올라와 보니 한번에 시름 흩어지네.
羸羸群峰圍大野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은 큰 들을 에워싸고
陰陰古木繞長洲	어두침침한 고목들은 긴 사주를 둘러구나.
佳名春服遺風在	아름다운 이름과 춘복의 유품이 있으니
好事前賢傑句留	일 좋아하는 선현들의 걸출한 시구도 남아있네.
徒倚危欄日將暮	겨우 높은 난간에 기대니 해 저물려 하는데
滿山松籟似冷秋	산 가득한 솔바람 소리 서늘한 가을 같구나.

위 시는 洪命亨이 1616년에 쓴 차운시이다. 대체로 후대로 갈수록 풍

21) 朴弘立, “密雨翻江風未休 高樓春日客添愁 濃烟亂冪千村樹 大野橫分十里洲便欲移家仍住着 不妨携酒且淹留 憑欄細憶生平事 一曲商音兩鬢秋”

22) 鄭斗源, “薄宦糜人苦未休 暫尋幽境滌煩愁 群山繞野渾疑畫 一水回沙別作洲 簷豁東南迎月好 階依松竹護春留 柴門老樹孤村在 卜築于今問幾秋”

23) 安邦俊, “爲愛茲亭數日休 風光依舊蕩塵愁 山當檻外雲生礎 樹繞沙邊露滴洲 箇中賢達今何去 壁上瓊琚古跡留 却恨來我時已暮 詠歸春服不宜秋”

24) 鄭弘溟, “征案偶向野亭休 坐失胸中萬斛愁 落日水光寒入戶 平蕪草色細分洲 仙人去後江山在 詩句題時姓字留 多少往來俱逆旅 幾回遊賞閱春秋” 柳馨遠, “鞍馬勞勞不暫休 名亭一上豁羈愁 崗巒拱揖圍平野 鶴鷺翔回下遠洲 殊絕風煙都領畧 團欒觴詠故淹留 未必舞雩能勝此 佳辰又況屬清秋”

영정 현판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앞서 봤던 데로 김언거의 시문 수집과 관인들의 빈번한 출입과 그에 따른 차운시의 증가로 인해 현판의 수가 늘어나 풍영정의 절경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판은 과거 이곳을 지난 인물들의 자취라는 면에 있어서 주로 과거를 상기시키는 용도로 시에 많이 등장하지만, 한편 위의 시에서처럼 감흥이 되는 절경 자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과거는 대체로 그리움을 상징하지만, 이 시에서 현판이 과거를 그리거나 과거에 대한 향수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공간 자체로 인해 시름을 씻어냈기 때문이다. 화자에게 있어 풍영정은 화자의 열망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향으로 기능한다. 위의 시들처럼 전반에 걸쳐 해소되는 시름을 읊은 시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누정은 시름해소를 할 수 있는 이상향이기 때문이다.

薄宦靡人苦未休	낮은 벼슬에 메인 사람 괴로워도 쉬지 못하다
暫尋幽境滌煩愁	잠시 유경을 찾아가 번거로운 근심을 씻네.
群山繞野渾疑畫	많은 산 들관을 둘러서 모두 그림인 듯하고
一水回沙別作洲	한줄기 강물 백사장을 돌며 따로 모래톱을 이뤘네.
簷豁東南迎月好	동남으로 처마가 열려있으니 달맞이하기에 좋고
階依松竹護春留	송죽이 기댄 계단은 봄빛을 띠고 남아있다.
柴門老樹孤村在	사립문 앞 늙은 나무는 외딴 마을에 있으니
卜築于今問幾秋	터 잡은 지 지금까지 몇 해나 되었는고?

이 시는 1618년에 鄭斗源이 쓴 차운시이다. 역시 낮은 벼슬에 메인 관인의 신분으로 잠시 풍영정을 찾아 시름을 풀고 있는 화자의 소회를 담은 시이다. 수련에 벼슬에 메인 시름은 잠깐의 풍영정 방문으로 씻어지고, 한편부터는 근심을 씻어준 “幽境”인 아름다운 풍영정의 경관과 수려한 풍영정 건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풍영정에 대한 감회로 끝을 맺었다. 잠시 찾은 幽境이긴 하지만, 앞서 본 김지남과 여필용처럼 시름의 해소가 일시적인 것에 대한 회한으로 귀결되거나 목장흥

처럼 일시적이어서 더욱 깊어지지 않는 것이 차이이다.

이런 일시성으로 인한 시름이나, 혹은 일시적인 시름 해소는 송인수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6세기의 차운시들에 귀전의 열망으로 귀결되는 성향이 강했다면 17세기의 차운시들에는 좀더 다양하게 시름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름을 풀어내는 방법이 다양화 된 것은 아마도 17세기의 차운시 작자 수가 더 많아졌고, 이 지역에 부임한 관리나 방문하는 문사들로 작자 유형이 변해서 16세기의 작자들 보다 대부분의 작자들이 일회성이 짙다 하더라도 직접 풍영정을 본 작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작자들의 기본 성향은 전형적인 유학자이자, 문관들이고, 시름이나 귀전과 같은 내용적 특성이 바뀐 것이 아니니 만큼 귀전이나 시름이 주 소재인 16세기와 17세기의 차운시들이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판을 소재로 한 차운시들의 경우는 16세기의 차운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다.

### 3) 17·18세기 : 회상의 도구로써 현판

누정시에 있어서 과거는 언제나 돌아가고 싶지만, 혹은 참여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으로 기억된다. 벗들과 놀았던,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올랐던, 혹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선현들의 자취를 지금 내가 밟고 있다고 느끼진, 언제나 누정에서의 과거는 현재인 지금보다 월등하다. 누정에 있어서 이런 과거에 대한 흥취와 기억, 아름다운 절경을 그대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정시이다. 그리고 이런 누정시는 현판으로 조각되어 누정에 영구히 이상적인 과거로 기억된다. 이상적인 과거의 모습을 현재 이곳을 찾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판은 누정을 찾은 이들에게 현재 눈앞에 존재하는 실경과 함께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누정의 모습 뿐 아니라, 옛 과거의 누정을 과거의 선현들과 함께 향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현판은 누정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수려한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

움뿐 만아니라 이러한 절경이 문학적으로 구현된 문학적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함께 준다. 풍영정의 차운시에서는 풍영정을 방문해 과거를 그리는 시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체로 현관이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풍영정 차운시에서 현관을 소재로 한 시는 전시된 현관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17세기이후부터 많아진다. 그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보다 많은 차운시들이 생성되고 그 차운시들 중에 유명한 문사가 쓰거나, 유려한 작품을 판액하여 누정 상단에 전시하는 관행 때문이다. 약 80편의 수를 자랑하는 풍영정에서 현관은 후대로 갈수록 풍영정 방문자들을 압도시킬 만큼 하나의 경관이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17세기 그리고 18세기, 19세기의 차운시로 갈수록 현관의 시들에 대해 읊는 시들이 많아진다. 17세기에 현관을 대상으로 한 시들은 시름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인데, 鄭弘溟, 李聖求, 金勘, 金克恒, 梁慶遇, 申翊全 정도이다. 18세기 이후의 차운시는 총 19수로 19세기에 지어진 차운시는 李廣度, 趙雲明, 李益在, 宋教煥 정도이고 나머지는 18세기에 지어진 차운시이다.

오래되어 축적된 차운시가 많은 누정일수록 선대의 차운시를 전시하는 경향이 큰 누정 현관 전시의 특성상 이 시기의 시들은 대체로 개인 문집에 더 많이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당시 이 고을에 부임한 관료들(任陞, 柳成運, 李廷龍, 洪景厚, 呂必容, 趙雲明 등), 후손(宋教煥, 李廣都, 趙宗裕, 李益在 등) 그리고 당시의 문사들이다. 작자층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후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여전히 송인수의 운자를 사용하고 작자층도 당대의 관료들과 문사들이라 주요 키워드인 귀전과 시름, 그리고 현관을 소재로 하며 내용상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이광도, 조종유, 이익재, 송교환 등과 같은 경우처럼 선조의 현관을 보고 차운을 한다던가, 선조의 훼손된 현관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운시를 판액하는 경우는 18세기 이후에만 보인다.

이런 17·18세기의 시들에서 현관은 선현들의 명구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절경이 되어 시름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sup>25)</sup> 명구로 인해

다시는 오지 않을 선현들의 훌륭한 자취에 대한 그리움으로 승화되기도 한다.<sup>26)</sup> 절경이 되어 선현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기능이 주된 것이긴 하지만, 18세기로 넘어갈수록 권필, 이황과 같은 명현을 숭앙하는 것 보다는 후손이 되어 선조를 기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차이이다.

征鞍偶向野亭休	말 안장 우연히 시골 정자를 향해서 쉬는데
坐失胸中萬斛愁	앉아 보니 가슴 속 온갖 근심이 사라졌네.
落日水光寒入戶	지는 해에 물빛이 문에 차갑게 들고
平蕪草色細分洲	평평한 들판 풀빛 모래톱을 잘게 나누네.
仙人去後江山在	선인이 떠난 후에도 강산은 남아있어
詩句題時姓字留	시구 지을 때의 그분들 이름자도 남아있다.
多少往來俱逆旅	여러 사람들 함께 이 역리를 오고 가면서
幾回遊賞閱春秋	몇 번이나 놀고 즐기면서 세월을 지냈을까?

위의 시는 鄭弘溟이 쓴 차운시이다. 길을 떠나 다니다 우연히 들른 풍영정에 앉아보니 무수히 많은 선현들의 시문들을 통해 역사가 오래된 정자의 과거를 상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선현들을 仙人이라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풍영정을 선계로 규정한다. 우연히 들른 풍영정에 강산이 남아 있듯 仙人들이 남긴 시문도 강산처럼 아름다운 절경이 되어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풍영정의 유구함과 선현들의 자취를 감탄하고 있는 시이다.

爲愛茲亭數日休	이 정자가 좋아서 수일 동안 쉬는데
風光依舊蕩塵愁	풍광이 의구해 세상 시름 다 쓸려가네.
山當檻外雲生礎	산은 난간 밖에 닿아있어 구름 주춧돌서 일고

25) 李聖求, “語不驚人死不休 古人詩句破人愁 一時雄傑李東嶽 千載離騷權石洲 少坐亭中擡眼急 曾題壁上見名留 政堪把酒登臨處 況是重陽黃菊秋”

26) 金鑑, “僕射風流已矣休 一江雲物自生愁 窮冬凍雪猶封竹 日夕繁陰乍隱洲 蓮幕勝遊何處去 蘭亭陳跡至今留 悲來欲問當時事 忍淚佳人有杜秋”, 金克恒, “亭下長江流不休 群賢登眺幾鎖愁 程朱學問稱陶叟 李杜文章記石洲 素月有期依舊出 青山無語至今留 詠歸豈獨當春暮 從夏逍遙又過秋”

樹繞沙邊露滴洲 물이 모래 가를 두르니 이슬 모래톱에 내린다.  
 箇中賢達今何去 이 가운데 현달한 분은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壁上瓊琚古跡留 벽 위에 주옥같은 시구만 옛 자취로 남아있네.  
 却恨來我時已暮 내가 온 때가 너무 늦어 도리어 한스럽고  
 詠歸春服不宜秋 춘복에 시 읊고 돌아감은 가을에 마땅치 않구나.

위의 시는 安邦俊이 쓴 차운시이다. 정홍명의 시처럼 의구한 풍광을 자랑하는 풍영정에 감탄하면서도 벽 위에 걸린 주옥같은 선현들의 시를 봄에 자신이 그 과거에 참여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다. 풍광이 의구한 정자에 수일동안 쉬면서 시름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데도, 미련에서 한스러운 이유는 주옥같은 옛 선현들의 자취만 있고 직접 그분들을 뵈는 때를 시인이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과거에 참여할 수 없음에 대한 시름이자, 그에 대한 그리움이다.

語不驚人死不休 말로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죽어서도 쉬지 못하다는데  
 古人詩句破人愁 옛 사람의 시 구절이 사람의 근심을 깨트려주네.  
 一時雄傑李東嶽 한 시대의 영웅호걸은 이동악이요  
 千載離騷權石洲 천년이 된 이소는 권석주로나.  
 少坐亭中擡眼急 잠시 정자 가운데 앉아 급히 눈 들어보니  
 曾題壁上見名留 일찍이 벽에 시 써서 이름 남긴 것 보인다.  
 政堪把酒登臨處 바로 여기는 술을 가지고 오를만한 곳이니  
 況是重陽黃菊秋 하물며 이 중양에 누런 국화 피는 가을에라

위의 시는 1628년 관찰사 李聖求가 쓴 시이다. 이 시는 풍영정의 현판이 주요 시적대상이다. 수련에서는 좋은 시구를 탐하는 성정이라 남을 놀래킬만한 말이 아니면 죽어서도 쉴 수 없다<sup>27)</sup>는 두보의 시구를 용사하여 풍영정에 걸린 아름다운 시문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근심이 깨트려진다고 하고 있다. 풍영정의 수려한 경치를 볼 것도 없이 천장에 주렁주렁 걸린 수많은 주옥같은 시구들만으로도 시름을 푸는데 충분한 것이다. 이렇

27)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爲人性僻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

게 풀린 시름은 함련에서 시구를 남긴 선현들에 대한 찬미로 이어진다. 영웅호걸을 李安訥로 이소는 權鞞로 칭찬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련에 이곳에 들러 옥 같은 시들을 남긴 옛사람들의 이름자를 살펴보는 행위로 연결된다. 그리고는 미련에서 이런 곳이야 말로 바로 국화 피는 중앙절에 술을 가지고 오를만한 곳이라는 감탄으로 끝을 맺는다. 경관이야 말할 것이 없는 유명한 풍영정이지만, 시인에게 더욱 감탄스러운 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써놓은 시문들이었다. 과거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풍영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 놓은 시문들이 현판으로 실현되어 풍영정의 실경으로 하나의 장관을 이룬 것이다.

이 외의 시에도 현판에 대한 감상을 그린 시들이 많은데, 1631년에 金鑑은 안방준의 시에서처럼 과거의 사람들은 없고 과거의 자취만 남긴 것에 대한 쓸쓸함을 그리고 있고<sup>28)</sup>, 1640년에 쓴 趙纘韓의 시는 좋은 글귀를 이루지 못한 시름을 선현들의 글들을 통해 달래며 이런 선현들의 글들을 통해 풍영정의 유구함에 감탄하고 있다.<sup>29)</sup> 이처럼 현판은 과거를 향수하는 매개로, 풍영정의 실경으로 여러 차운시들에서 표현되었다.

또 한편 과거를 상징하는 현판은 선현들 중 본인의 선조들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판을 소재로 한 차운시들은 대체로 17세기 이후부터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현판을 통해 선조를 기리는 시들은 18세기나 19세기경에 이 지역에 부임한 관료로 왔다가 선조의 시구를 보고 후손의 입장으로 차운한 시들이 많은 편이다. 앞서 2장에서 살폈다시피 풍영정은 이 근방에 부임한 관인들이 연례행사처럼 풍영정을 찾아 의례적으로 차운시들을 제작했었다. 특히 현판이 많아진 조선 중후기에 부임한 관료들은 풍영정에 남겨진 선조의 자취를 기리기 위해 훼손되거나 누락된 현판을 보수하고 보수 한 뒤에 그에 붙여 소감을 쓴 차운시를 남

28) 金鑑, “僕射風流已矣休 一江雲物自生愁 窮冬凍雪猶封竹 日夕繁陰乍隱洲 蓮幕勝遊何處去 蘭亭陳跡至今留 悲來欲問當時事 忍淚佳人有杜秋 ”

29) 趙纘韓, “客意非關就此休 未成佳句便成愁 天浮繡巘圍長野 地走銀江遶遠洲 清致喜隨嵬眼幻 風光肯入小詩留 可憐當日晴川詠 能使人驚問幾秋 ”

기거나, 풍영정 현판에 보인 선조의 글에 감화를 받아 시를 남긴 경우가 꽤 많다.

天時霽潦卜行休	장마가 개는 계절에 행휴를 정하면서
宦海都忘得失愁	환로에서 득실의 시름을 모두 잊었다네.
特地烟霞芳樹岸	특별히 안개놀 낀 꽃나무 언덕에
近人魚鳥綠楊洲	가까이 고기와 새 푸른 버드나무 물가라네.
紗籠繞壁精神古	사롱으로 벽을 둘러싼 정신은 예스럽고
鏗瑟升堂氣像留	당에 올라 비파 뜬던 기상도 남아 있네.
吾祖當年臨玉節	내 선조께서 그때 옥 부절을 차고 임하셨으니
風流浩蕩幾經秋	호탕한 풍류 몇 해나 지났을까?

위의 시는 1835년 능주목사 李廣度가 쓴 차운시이다. 여름날 쉴 곳을 풍영정으로 정하면서 환로의 시름을 잊는 전형적인 시름 풀기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이 시의 詩序를 보면 선조인 石樓 李慶全의 차운시를 읽고 감동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석루공의 시운을 따라 지었다<sup>30)</sup>고 되어 있다. 이경전이 차운한 시는 모두 4수인데, 이 시 또한 4수로 여기에 인용된 시는 두 번째 시이다. 현판을 보고 느낀 시인의 감흥은 경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옛 모습 대로 소중히 남겨진 현판들의 모습에 당시 풍영정에서 풍류를 즐기던 선조의 기상을 상상하며 미련에서 선조의 자취를 돌아보며 지나간 세월을 세어보고 있다. 즉 현판을 통해 과거 선조의 자취를 느끼고 그때의 풍류를 선조의 시문을 통해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半日湖亭萬念休	한나절을 호정에서 온갖 생각 멈춰두니
不登應有未登愁	오르지 않으면 응당 오르지 못한 근심 있으리.
烟中樹出茫茫野	안개 중의 나무들 넓고 아득한 들녘으로 뻗어있고
鷗外波來濼濼洲	갈매기 밖의 파도는 출렁이며 사주로 밀려오네.
地待幽棲三逕關	이곳은 은자를 기다려 세 갈래길을 터놓았고

30) 光州風詠亭 漆溪金公 休退所構 而河西退陶諸先賢 吟詠揭於其四壁 吾先祖石樓公 所述亦載重疊也 不勝感慕 敬次其韻

天教勝賞一區留 하늘은 좋은 경치를 한 곳에 남게 했다네.  
 壁間遺墨添新感 벽 사이의 유묵들은 새로 감회를 더해 주건만  
 吾祖經過已百秋 내 선조께서 지나가신 지 벌써 백년이라네.

위 시는 1739년에 화순현감인 趙宗裕이 쓴 시이다. 이 시 또한 선조인 玄洲 趙纘韓의 현판을 보고 그 감회를 이기지 못하여 쓴 시이다. 수련에서 말한 오르지 못하는 근심이 생길 정도로 명승인 풍영정은 시인에게 있어서 아마도 선조의 자취 때문에 더욱 그런 공간일 것이다. 함련과 경련에서 풍영정의 수려한 경치와 풍영정에 대한 찬미로 이어지다가 미련에서 벽 사이 무수하게 많은 선현들의 시 사이에 있는 선조의 글을 보고서 선조에 대한 짙은 그리움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현판은 이상적인 과거의 풍영정을 상징한다. 과거의 풍영정이 언제나 지금보다 이상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시인들이 남긴 아름다운 흥취와 그들의 이름 때문이다. 즉 현판은 선현들이, 혹은 나의 선조들이 노닐던 곳을 지금의 나도 함께 노닐고 있다는 감상을 불러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 한편 풍영정 천장에 걸린 100여편 가량 되는 많은 현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 되어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때문에 풍영정은 지금 이곳을 노니는 내가 언제든 과거를 그리고, 기릴 수 있는 과거의 공간이 될 수 있다.

#### 4. 맺음말

여기까지 미흡하게나마 77여편의 현판시를 중심으로 풍영정 차운시에 대한 시기별 양상 과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풍영정은 광주, 장성, 나주 세 지역의 길목에 있었다는 지리적 특성과 당시 부임했던 관료들의 관례적 방문이 잦았다는 특징, 이 때문에 새로운 운자를 생성하지 않고 송인수의 원운에만 차운하는 경향 등이 보였다. 시기별로 내용상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누정 주인인 김언거와의 교유가 밀접하고, 비교적 누정을 방문하지 않은 채 작시한 경우가 많은 16세기의 작자들은 시름이 귀전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되는 모습이 많다. 관인이나 문사들의 일회성 방문이 많아지는 17세기에는 그 작자들의 수도 많아서, 귀전 뿐 아니라, 일시적인 시름해소, 혹은 일시성으로 인한 시름 유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특히 현판시가 많아지기 시작한 17세기부터 현판을 소재로 한 시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시들은 18세기 이후에 많이 보인다. 이러한 시기별 양상을 통해 풍영정 차운시의 주요 키워드를 귀전, 시름, 현판으로 보고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판시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풍영정 차운시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18세기 이후의 차운시들은 현판으로 제작되기 보다 대체로 개인문집이나, 혹은 지방지 등에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운한 각각의 작자들과 김언거 혹은 칠계공파 문중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지역문인과 차운시 작자들간의 연관성과 관계 등을 파악하지 못해 방문목적, 교유관계 등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16세기 호남지역을 대표할 만한 규모를 가졌으며 그에 걸맞게 무수히 많은 시문을 보유한 풍영정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누정 차운시는 그동안 누정기, 누정연작제영에 비하면 주목받지 못했었다. 그럴 것이 누정 차운시는 누정 공간을 누정기나 누정연작제영에 비해 공간을 면밀히 살핀 채 쓰기보다 누정에 대한 소회나 감흥을 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누정 차운시가 갖는 범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누정연작제영이나 누정기에 비해 누정에 대한 진솔한 시인의 감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누정 공간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풍영정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누정 차운시에 대한 밀도있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高峯集』

『圭菴先生文集』

『陽谷先生集』

『隱峯全書』

『霽峰集』

『晴沙集』

『退溪集』

광산김씨칠계공파문중, 『漆溪遺集』, 광주: 호남문화사, 2004.

광산김씨칠계공파문중, 『風詠亭詩選』, 광주: 호남문화사, 2007.

권수용, 「광주 풍영정의 문화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81면-108면)

김신중, 「전남의 누정제영연구: 조선후기의 연작제영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4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현 호남학연구단), 1996. (249면-284면)

김대현, 「方菴 梁敬之의 「瀟灑園30詠」 研究」, 『한국언어문학』45, 한국언어학회, 2000. (31면-48면)

박연호, 「광주 풍영정 원림의 공간특성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31면-51면)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호남지역 누정제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32, 우리어문학회, 2008. (255면-284면)

최경환, 「洪命元의 <鳳翼亭四詠>시와 4수 연작누정집경시의 작시원리」, 『외대논총』, 부산외국어대학교, 2002. (521면-539면)

최경환, 「多人 創作 누정집경시와 시적 이미지 창출」, 『동양한문학연구 (구 부산한문학연구)』 18집,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2003. (227면-264면)

최경환, 「李齊賢의 <和季明叔雲錦樓四詠>시와 4수 작시원리」, 『외대논총』 26집, 부산외국어대학교, 2003. (271면-294면)

투고일 : 2011년 7월 15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 A study of Pungyoungjeong(風詠亭) rhyme-borrowing poems

Hwang, Min-sun

Pungyoungjeong(風詠亭) built by Un Guh, Kim(金彦琚, 1503~1584) in 16th century had performed a function of people's attraction due to not only a good reputation of Un Guh, Kim(金彦琚, 1503~1584) and his colleagues but a location of Pungyoungjeong(風詠亭) connecting Gwangju, Naju and Jangseong. A volume of rhyme-borrowing poems were naturally produced because of many people's comings and goings to Pungyoungjeong(風詠亭). And in comparison to other pavilions of this time, especially in respect of their number, they became a peculiarity of Pungyoungjeong(風詠亭), a great landscape.

A spatial character of a pavilion produced a large number of literary works that created unparalleled grandeur as they were placed on the top of a pavilion in a form of a wooden board. Such a kind of Nujung literatures brought a motive of the other Nujung literatures. They were inspiring people to create literary works even though they never enjoyed time in a pavilion. Therefore, Nujung literatures that provided an actual and a literary scene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a place, a pavilion.

The previous studies that researched spatial figures of pavilions through

Nujung poems were generally based on Nujungyeonjakjeyoung(樓亭連作題詠). Because it essentially has a nature of setting a great view for composing a place, a pavilion, the comprised space became a typical place where not only represented each of pavilions but expressed enjoyers' consciousness of a pavilion and scenic aesthetics. However, it is limited to grasp the place, a pavilion with Nujungyeonjakjeyoung(樓亭連作題詠) focusing on collecting sceneries. Accordingly, we need to examine Nujungjeyoung(樓亭題詠) taking much portion of Nujung poems. Pungyoungjeong(風詠亭) has a vast majority of rhyme-borrowing poems, approximately over 180 in comparison to other pavilions in the same period. To understand the place of Pungyoungjeong(風詠亭) in depth, approaching to rhyme-borrowing poems of Pungyoungjeong(風詠亭) is indispensable. This manuscript, therefore, mainly discussing about rhyme-borrowing poems of Pungyoungjeong(風詠亭), analyzed spatial characteristics of Pungyoungjeong(風詠亭) with three keywords, vision, apprehension and longing for the past

**Key-words :** Pungyoungjeong, rhyme-borrowing poems